

유아용 그림책에 나타난 죽음에 관한 내용분석 태도

한 은 주(울산대학교 석사) · 김 영 주(울산대학교 교수)

본 연구는 국내에서 출판되어 유아들에게 읽히고 있는 죽음을 주제로 한 그림책에 나타난 죽음 대상과 원인, 비탄과정에 나타난 죽음에 대한 반응과 대처, 죽음에 대한 설명을 분석하여 유아를 대상으로 한 죽음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은 우리나라에서 출판된 국내와 창작 그림책 중에서 한 사람의 일생을 다루고, 죽음과 밀접한 주제를 가진 그림책 55권이다. 연구 방법은 내용분석법이다. 죽음에 관한 그림책의 내용을 분석하기 위해 내용분석지를 사용하였다. 내용분석지는 그림책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과 죽음에 대한 비탄 반응, 죽음에 관한 대처방식, 죽음에 대한 설명을 분석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죽음에 관한 비탄 반응을 분석하기 위해 Ross(1969)와 Worden(1991)의 분류기준을 사용했고, 죽음에 대한 대처 방식을 분석하기 위해 민하영과 유안진(1998), Band와 Weisz(1988)의 아동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참조하여 문항을 구성하였다. 또한, 그림책에 나타난 죽음에 대한 설명을 분석하기 위해 Ward(1948)의 비탄 교육 안내서와 Kutner(1988)의 죽음교육 목적을 참조하여 분석 문항을 구성하였다. 분석을 통해 수집된 결과는 모두 빈도와 백분율로 처리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죽음이 나타난 그림책은 국내에서 창작된 그림책이 6권, 국외에서 창작되어 번역 소개된 그림책이 49권이었다. 중심인물은 주로 아동(74.5%)이었고, 성별은 남자(52.7%)였다. 둘째 그림책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대상은 가족(63.6%)이고, 동물(30.9%), 친남(5.5%) 순이었다. 죽음의 원인이 나타나는 그림책은 전체의 58.2%였고, 죽음의 원인은 자연사(23.5%), 질병이(21.8%), 사고(12.7%)였다. 셋째, 임종자가 직접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는 34.5%였으며, 죽음을 맞이하는 과정이 묘사되는 경우, 부정과 분노는 나타나지 않았고, 타협(3.7%), 우울(25.9%), 수용(70.4%)으로 나타난 전반적으로 죽음을 수용하는 과정에 대한 묘사가 많았다. 죽음을 지켜보는 사람들의 반응은 인지적 반응(28.3%), 정서적 반응(48.7%), 행동적 반응(23.0%)로 나타났다. 넷째, 그림책에 나타난 죽음에 대한 설명은 인지적 설명이 전체의 41.5% 정도였다. 인지적 설명에는 죽음에 대한 개념 이해(77.8%), 생명의 태어남과 성장, 노화, 죽음에 관한 설명(13.3%), 자연의 섭리와 생명 존중에 관한 내용(8.9%)이 있었다. 정서적 설명은 전체의 36.9%였다. 정서적 설명의 세부 내용은 슬픔과 이도(53.8%), 타인의 지지 구하기(38.7%), 긍정적 수용과 희망(7.5%)이었다. 행동적 설명은 전체의 21.6%였고, 세부 내용으로는 장례의식(38.3%), 임종자 돌보기(29.9%), 유품 남기기(19.1%), 조의문 쓰기(12.7%)가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유아의 발달에 적합한 죽음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를 바탕으로 죽음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유아로 하여금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감소시키고 죽음에 대해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키워 보다 책임있는 삶을 영위하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